

“영암호·솔라시도, 남해안 관광벨트 축으로”

해남·영암군 ‘영암호 활성화’를 위한 관광레저 공동포럼’ 개최 전남 섬·해양 계획·관광 실태·체류형 관광 등 활성화 방안 공유

“영암호와 솔라시도를 남해안 관광벨트 축으로 만들자.”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전남 서남권 대표 해양레저 관광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

해남군은 영암군과 함께 관광레저 기반 구축을 위한 내수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난 2일 영암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영암호 활성화를 위한 관광레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립목포대학교, 한국섬진흥원, 경기도청, 케이워터운영관리,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양레저센터, (재)해남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서일본유체기술연구소, 한국리서치, 국립부경대학교, 신우산업, 프로젝트 수, ㈜에스텍 등 해양레저관광 관련 산업의 전문가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해남군, 영암군은 공동으로 기업도시 3개지구(구성·삼포·삼호)와 영암호를 연계하는 해양레저관광 기반구축을 통해 서남부권 관광레저 동

력을 확보하고자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구축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암호와 주변 서남해안 일대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자원화 개발계획을 세워 영암호를 복합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기본구상용역을 마치고, 해양수산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도전할 계획으로,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제안을 수렴, 경쟁력 있는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박성현 목포대 교수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와 영암호 미래상’을 주제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의 중요성과 영암호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이태경 한국섬진흥원 연구원은 ‘섬 지역 연계 해양관광거점 활성화 방안’으로 전남도 섬·해양 관련 계획 및 관광 실태와 섬 지역 장기 체류형 관광과 해양레저거점 연계 및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지난 2일 영암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영암호 활성화를 위한 관광레저 포럼’을 개최한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도 김충환 경기도청 전문위원은 ‘해양레저산업 동향 및 경기도 해양레저사업’을 소개했고, 안형주 케이워터 운영관리 부장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교육’을 주제로 해양레저 인력양성 현황 및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어 인하공전 해양레저센터장 정우철 교수를 좌

장으로서 토크에서는 ‘관광레저 기반 구축 위한 내수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해양레저관광 전문가와 지역관계자 등 20여명의 패널 토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차진 해남부군수는 “해양레저 관광시장은 전체 관광시장의 50%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3% 이상 꾸준한 성장과 함께 전 세계 GDP와 전체

일자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며 “내수면과 해양 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어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영암호를 활용해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어업인 안전조업·만선 기원 ‘풍어제’

목포수협, 북항 일원 뱃고사

목포수협이 지난 2일 북항 일원에서 2024년 풍어제와 수산물 판매장 개장 행사를 가졌다.

이번 풍어제에는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해 목포해양대학교 한원희 총장,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김기성 대표이사, 목포상공회의소 정현택 회장,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장 등 3500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풍어제는 예로부터 어촌에서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만선을 기원하고, 조업 중 불의의 해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어업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는 전통적인 전국 최대 문화축제다.

국가 무형문화재인 진도 씻김굿으로 풍어기원

고사를 지낸 목포수협 풍어제는 올해 87주년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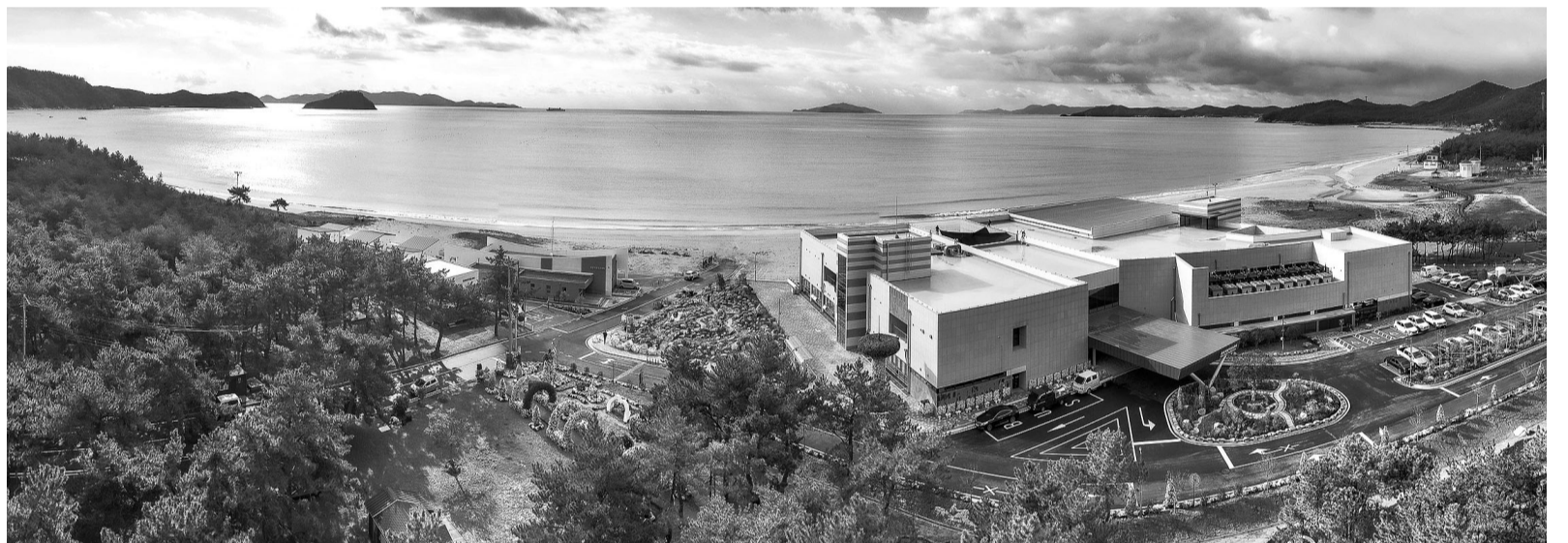
특히 이번행사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나가 용왕님께 어업인의 안전 조업과 풍어만선을 기원하는 뱃고사를 지내 눈길을 끌었다.

풍어기원고사가 끝난 후 다양한 가수들의 축하 공연에 이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뱃고사를 지냈다.

김정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풍어제가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산업을 기회로 만드는 희망의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며 “목포수협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해양치유센터’ 이용권 선물로 마음 전하세요



개관 다섯 달 만에 2만2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완도군 신지면 해양치유센터가 이달 3일부터 장기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센터 전경. (완도군 제공)

완도군, 장기 이용객 60% 할인

완도군은 이달부터 신지면 해양치유센터 장기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1월25일 문을 연 뒤 지난달 말까지 2만2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이곳에서는 해수와 해조류, 진흙(머드)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완도군은 ‘완도에서 한 달 살기’, ‘일 년 살기’ 등

을 진행하면서 센터 정기 이용을 연계하고 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최근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웰빙+피트니스) 관광지’로 꼽히기도 했다. 완도군은 장기 치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양치유센터 이용권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1층의 기본 프로그램 이용 정상가는 3만6000원으로, 이용권 30장을 구매하면 6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 프로그램 이용 정상가는 12만5000원으로 이용권 10장 이상 구매하면 30%, 20장 이상 구매하면 40%, 30장 이상 5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이용권은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만 살 수 있으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구매와 문의는 완도 해양치유센터(061-550-7676, 7675)로 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치유는 일회성보다는 최소 2~3주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내 몸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서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등 가족에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해양치유센터 이용권을 선물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풍광·매력 담은 ‘1004섬 기념우표’

전국 우체국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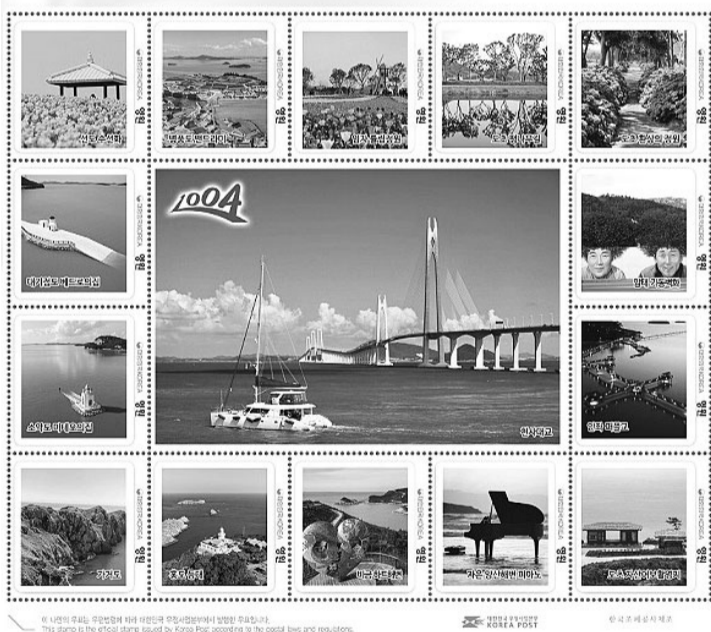
신안군의 풍광과 문화유산 등을 담은 기념우표(사진)가 발행됐다.

신안군은 5월부터 ‘1004섬 신안군 기념우표’를 발행해 신안군과 목포시우체국에 이어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기념우표는 지난 4월17일 신안군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목포우체국이 신안군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신안군청에서 체결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됐다.

‘1004섬 신안군 기념우표’는 신안군의 유명 관광지이자 섬, 꽃, 축제, 문화유산 등 신안군만의 특별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담았다. 기념우표는 영인 우표로 요즘 금이 인상되더라도 우편물에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소장 가치도 충분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우표라는 작은 액자를 통해



신안군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후로도 신안군의 다양한 테마를 기념우표로 제작해 신안군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 남종화 작품 감상 기회, 이달까지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진도군이 남종화의 산실인 진도의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진도군은 ‘찾아가는 미술관’과 ‘윤림사색체험장’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미술관’은 오는 31일까지 강진군에 있는 전남인재개발원 다산인재아트홀에서 열린다. 이곳에서는 진도 출신 실경산수화의 대가인 백포(白浦) 락남배(1929-2004) 화백의 ‘모닥불’, ‘전가풍추’, ‘빨래터’ 등의 작품 14점을 전시한다.

‘윤림사색체험장’은 진도군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인기 관광지인 윤림산방에서 펼쳐진다. 방문객들이 직접 해 볼 수 있는 ‘물로 그리는 수묵화’, ‘산수화 퍼즐’, ‘빛과 모래 그림’, ‘소원 나무’, ‘느린 우체통’ 등 다양한 예술 체험이 마련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진도의 우수한 예술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미



진도군이 이달 말까지 강진 전남인재개발원 다산인재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시관’에서 락남배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술관을 통해 작품을 전시한다”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문

화예술 콘텐츠를 발굴·운영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황토갯벌랜드서 요리하고 편백 족욕

무안군 ‘뷰 맛집 셀프주방·카페’ 운영... 갤러리 체험공간 등 갖춰

무안황토갯벌랜드에 직접 요리를 하고 편백 족욕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무안군은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뷰 맛집 셀프주방·카페’를 지난 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곳에는 ‘뷰 맛집 셀프주방’과 카페, 갤러리 체험공간, 휴게공간 등이 들어섰다.

방문객은 직접 간편식(밀키트) 제품을 선택해 스스로 요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품목인 ‘잡스테인크’와 무안 생산 농가의 ‘두부버섯전골’, 고구마 간식 ‘설레고·떡떡고’, ‘부대찌개’, ‘얼큰동태탕’, ‘차돌

된장찌개’ 등을 맛볼 수 있다. 치킨과 감자튀김도 5분 안에 조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야외 공간에는 차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 북고 놀이와 편백 족욕도 즐길 수 있다.

허재경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은 “황토갯벌랜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과 공간을 마련해 많은 분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황토갯벌랜드를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모시잎떡, MZ 취향 맞춘 ‘굿즈’ 제작

영광모시잎떡이 MZ 세대의 취향에 맞춘 ‘굿즈’(상품)로 다시 태어난다.

영광군은 최근 ‘MZ 세대 맞춤형 영광모시잎떡 홍보용 굿즈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영광군 떡산업 홍보 다양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6일 밝

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된 ‘굿즈’는 영광 대내외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민·관광객을 대상으로 영광모시잎떡을 알리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굿즈 제작에는 영광모시잎떡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캐릭터가 활용된다.

고윤자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굿즈 제품들을 통해 영광 모시잎떡에 대한 관심이 MZ 세대인 20~30대까지 영역이 확장되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 특산물 영광 모시잎떡이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떡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형진 기자 kcw@kwangju.co.kr